

여름철 다발 질병 치료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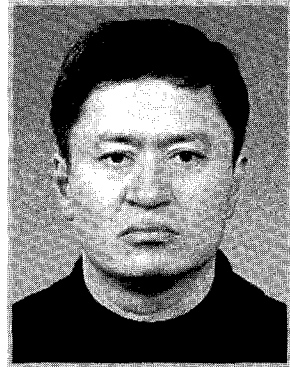
콕시듐 치료제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피해 막을 수 있다

- 약품업체별 항콕시듐지수 매년 공개 원칙 있어야...

닭의 콕시듐은 양계생산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5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피해가 막대하여 매년 이병의 사전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국내에 중국과 일본 등을 비롯한 국가에서 수입되어 사용되는 항콕시듐제의 판매량이 연간 수십억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과거에는 항콕시듐제의 효능이 탁월하다는 평이 나온다는 것을 학술논문으로 증명하였을지라도 지난 40년 이상 항콕시듐제 내성의 진전은 항콕시듐제의 효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인자의 하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90년대 초 이전까지만 해도 항콕시듐제의 효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의 하나인 항콕시듐지수(A.C.I)가 우수 이상을 나타내는 180이상 나타내는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항콕시듐제간의 A.C.I를 비교평가 할 수 있는 과학적 논문이 거의 발표되고 있지 않아 양



이 인 호
동물약품 전문기자

계농가와 사료공장의 품질관리자들이 기존에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항콕시듐제의 효능의 저하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이전에 스위스 로슈사로 합병되어 존재가 사라진 미국의 사이나미드사에서 국내 사료공장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스페인에서 항콕시듐지수를 측정해 본 결과 오래전에도 A.C.I는 대부분 매우 낮게 나와 국내에서 사용되는 항콕시듐제의 내성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된 바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공식적으로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EU에서도 곡시뿔중 문제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어 가축사료첨가제 제조업체 유럽연합(FEFNA, 2005)에서도 17종의 항곡시뿔제를 2013년까지 사용을 이미 허가하되, 단 2008년에 심사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검토해서 2013년까지 5년간 사용의 연장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EU에서 항생물질 사료첨가제를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호도하여 양축농가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2006년 이후에도 수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사료공장에서 항생물질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성장촉진 이외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성분(예를 들면 항곡시뿔제로 허가받은 모넨신과 살리노마이신)은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점을 혼동하지 말기를 바라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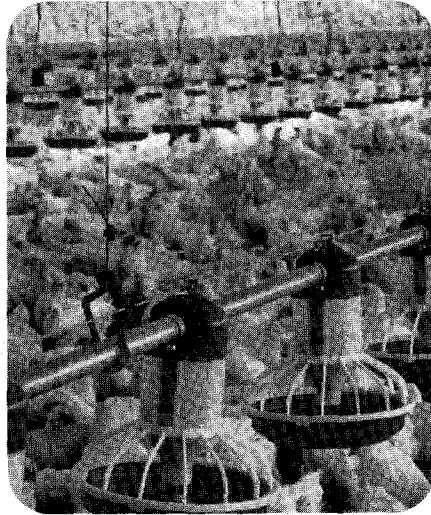
그러나 국내에서는 배합사료 내 사용이 허가된 25종의 성분 중에서 항곡시뿔제로 아이오노포 6종(모네신, 살리노마이신, 라살로시드, 마두라마이신, 셴듀라미신, 나라신)과 화학요법제 2종(디클라주릴과 클로피돌)을 비롯해서 총 8종이 사용이 허가되고 있다.

사용이 허가된 항곡시뿔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EU국가에서도 아직까지 사용이 허가되고 있는 암프롤리움, 데코퀴네이트, 할로후지논, 나이

카바진과 같은 성분은 모두 삭제되고, EU국가에서는 사용이 허가되지도 않은 클로피돌은 일부 국내 판매업체의 선방으로 생존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05년 6월에 물질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벨기에 안센사의 디클라주릴의 경우, 6월 이후에는 국내 업체들이 첨단 케리어 코팅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종래의 단순 혼합방식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가격이 저렴하고 효능 검증 절차가 의심스러운 복제제품을 허가받아 사료공장에

납품을 시도하려고 할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따라서 사료공장 관계자들이 양계 농가를 위해 효능을 공인받고 있는 원조 성분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 성분은 중국산, 시험결과는 벨기에 안센사의 자료를 거의 대부분 도용한 효능이 검증 안된 성분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순간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항곡시뿔제 원료공급사인 다국적 제



약회사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관련논문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본인이 최근에 EU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양계농가들과 사료공장 관계자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로는 중국에서는 Shandong LUXI Animal Medicine Share Compony Ltd.(상품명 Nuoqiu)를 비롯하여 여러 제조회사에서 유사 디클라주릴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내업체들도 올해 7월

이후에는 이들 중국 업체들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임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EU에서는 여러 회사에서 유사 디크라주릴을 성분으로 시장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료내 안전성 문제를 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EU기준 규격에 부합되지 못하고, 유사성분이라고 할지라도 제품별로 엄격한 품목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EU규정에서 요구되는 자료(DMF)를 제시하지 못해 아직까지 EU의 품목허가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러나 복제 제품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내 현실에서 동물약품업계는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주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시험이나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도 원료공급 국가만 바뀌어도 허가를 재취득해야 하는 DMF 제도를 시행하자고 하면 국내 실정에서는 무리라며 강력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자사의 항콕시뉼제의 효능을 실제 시험을 통해 재공인 받기 보다는 원조사인 안센사의 자료를 도용하여 영업행위에만 열중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후진국 형태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일본 경우에서 보듯이 약효재평가를 통해 유사제품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가 요망되고 있다.

현재 양축가들과 사료공장의 품질관리자들이 최신의 공인된 학술논문을 통해 항콕시뉼제의 효능을 정확히 평가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계농가들은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을 계속해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양계농가들이 필드에서 맹장콕시뉼 치료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톨트라주릴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상용 제품의 경우에도 원조사의

경우(1,000불 이상)에는 지금까지 부작용 사례가 알려지고 있지 않으나 중국산 저가 톨트라주릴(400~350불 이하)을 사용하는 일부 회사제품의 경우에는 품질관리의 부실로 양계농가들이 실제 사용 시에 겨울철에는 얼고, 분리현상으로 니플 급이기가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 지역의 판매점으로부터 반품을 당하고도 현재 자체 품질관리를 통해 기술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양계농가들은 품질관리능력이 떨어지는 회사에서 생산되는 일부 저가 톨트라주릴 제품이 반드시 양계농가에 이익을 환원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주지하고 제값을 주더라도 효능이 보장되는 제품선정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료공장에서는 EU국가에서는 배합사료 내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사용되고, 필드에서는 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중국산 액상용 톨트라주릴 성분이 유통되었다. 반품 조치되는 상황에서 과연 양계농가들은 자신들의 재산인 닭을 콕시뉼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항콕시뉼지수의 매년 공개를 비롯하여 관련업계와 관련기관에 어떠한 요구를 정당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서 점검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관련업계가 효능이 원조사의 제품에 비해서 버금가면서 가격이 저렴한 것이 아니라 캐리어 코팅기술과 같은 핵심기술을 가미하지 못해 저가이지만 효능은 미확인의 중국산 디크라주릴과 이미 중국에서도 의약품원료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저가이자 질이 낮은 톨트라주릴 제품을 양계농가에 공급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양계**